

방통위 싱가포르 공무국외출장 결과

- 싱가포르 국제방송장비박람회(BCA), 국제정보통신박람회(CMMA) 참관
및 싱가포르와의 개인정보 보호 협력 강화 등 -

◆ 기 간 : 2018. 6. 25.(월) ~ 6. 28.(목), 3박 4일

◆ 방문국가 : 싱가포르

2018. 7.



방송통신위원회

1. 목 차

I. 출장 개요	1
II. 세부 활동	2
1. 국제정보통신박람회(CMMA) 참관	2
2. mm2엔터테인먼트 방문	7
3. 국제방송장비박람회(BCA) 참관	12
4.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 방문	16
III. 보도자료	21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2018 BCA(국제 방송 장비 박람회), CMMA(국제 정보통신 박람회) 참관 및 싱가포르와의 개인정보 보호 협력 강화

2. 출장 국가 : 싱가포르

3. 출장 기간 : '18년 6월 25일(월) ~ 6월 28일(목), 3박 4일

4. 출 장 자

구분	부 서	직 위(직 급)	성 명
1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 석 진
2	위원실	비서관(행정사무관)	김 형 국
3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행정주사)	이 나 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임준옥 연구원, 김지은 통역사 동행

5. 주요 활동

- (BCA, CommunicAsia 참관) 국제 방송통신 기술 분야의 최신동향 파악 및 국내외 참가 기업 관계자 의견 청취
- (개인정보 보호 협력 강화)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정책 파악 및 협력 방안 논의

6. 선물수령 관련

- 선물 수령 여부 : O (액자 : IMDA)
- 선물 신고 여부 : X (미화 100\$ 이하의 단순 기념품)

II. 세부 활동

1. 국제정보통신박람회(CMMA) 참관

① 국제정보통신박람회(CMMA) 개요

□ 일 시 : 2018. 6. 26(화)

□ 장 소 : 마리나베이 샌즈 엑스포 & 컨벤션, 싱가포르

□ 행사 내용 :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박람회로 통신, 네트워크, 모바일, 보안 등 IT 전반에 걸쳐 최신 제품과 다양한 솔루션을 소개

□ 전시 품목 : 통신, 위성, 네트워크, 모바일, 스마트 기술 관련 IT 전반

□ 행사 규모

○ 참가업체 : 52개국 1,158개사(한국 113개사), 23개 단체관

○ 방문객 : 18,188명



② 주요 전시 현황

- (NAVY) 3D 애니메이션, 3D 프린터를 활용한 피규어, 게임 등을 기획·제작하고 셀피토이를 제작·판매하는 회사임
 - 셀카 사진을 웹사이트에 등록하면, 안면 인식프로그램을 통해 캐리커처화된 캐릭터를 생성하고 이를 디자이너 토이로 제작해주는 '셀피토이 서비스'를 전시
- (metaport) 일반시민을 위한 재난대응 프로그램, 공장·건설현장 등 산업안전 대응 훈련 프로그램 등 VR 기술을 이용한 재난안전 대응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 소방관을 위해 개발된 화재진압 가상훈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시연
- (INNOPLAYLAB) 로봇틱스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계학습, IoT 등을 결합한 서비스 플랫폼 구축
 - 이번 전시회에 선보인 스마트홈 로봇 '아이지니'는 날씨, 시간, 뉴스 등 광범위한 생활정보를 음성과 행동으로 제공하는 생활 친화형 로봇으로서 애완동물 형태의 귀여운 외관이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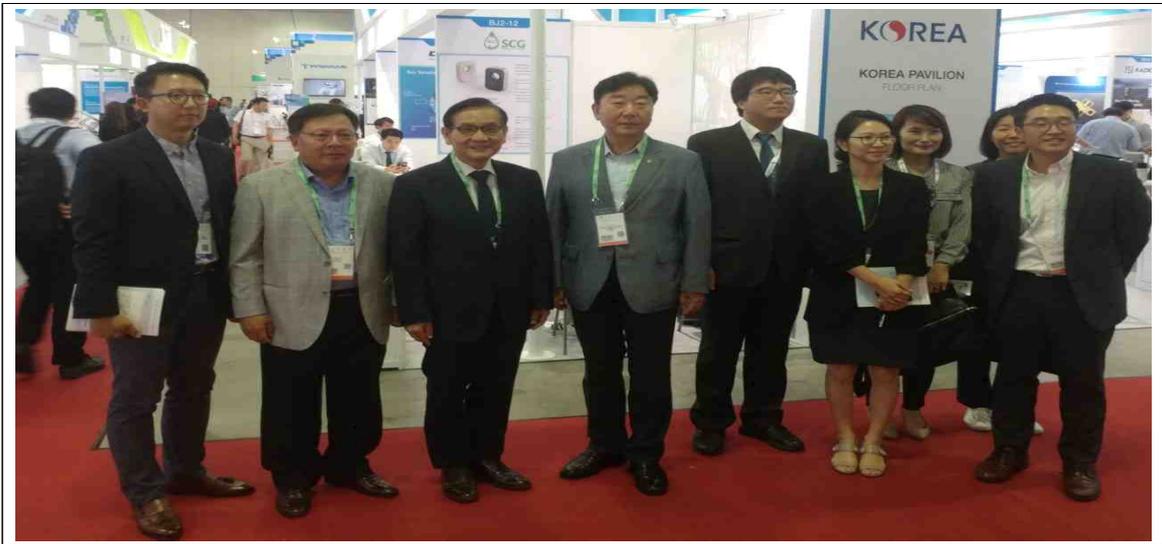


- (OMOROBOT) 공장, 물류센터와 같은 작업공간과 쇼핑센터, 캠핑장 등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물건을 이송하는 이동로봇 개발
 - 생활물류 이송 로봇인 '동키봇'은 사람을 따라서 물건을 운반하는 로봇으로, 특별한 사용법이 없이 사람이 센서를 잡고 걷기만 하면 거리를 유지한 채 사람을 자동적으로 따라옴
 - 원격리모컨을 통해 사용자가 쉽게 로봇을 제어하고 비상정지 및 원격조정 등이 가능하도록 모바일로봇 플랫폼도 제공하고 있음
- (Heaven Tree Software) '17.4월 설립된 회사로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클라우드 스토리지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주력 서비스인 '클로바' 클라우드 서비스는 개인과 기업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계획과 협업을 위해 실시간 진행되는 작업을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 아마존의 투자를 받아 아마존 기술진과 협업 중임
- (Hogreen Air) 기존 드론 연결방식인 와이파이, 블루투스 방식이 제어 가능 거리가 한정적이고 연결 끊김이 잦아 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보완하여 LTE 통신을 활용한 드론 제어시스템을 개발함
 - LTE 통신망을 활용한 드론 제어 및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며 관련 앱과 연동가능
- ※ '17년에는 약 9,300km 떨어진 독일에서 LTE통신을 활용한 원거리 조종 시연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하였음
- (ELIVISION) 센서, 카메라 등의 기기와 융합한 각종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업체로, 이번 전시회에서는 미용실에 설치된 거울을 통해 인증샷 및 동영상 촬영, 디자이너 별 스타일 제안, 두피와 피부 진단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마리보'를 개발

- (Quopin) 드론이 촬영하는 fullHD 영상을 와이파이로 연결해 지상에서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구현한 '모나리자 솔루션'을 개발
 - 기존에는 촬영한 영상을 드론에 저장하고 영상 데이터로 전송하면 지상에서 이를 받아 디코딩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실시간 확인이 어려웠으나,
 - 모나리자 솔루션은 네트워크를 점유하는 대역폭이 작아 와이파이로도 원거리 전송이 가능
- (INNODEP)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 영상감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서 최근에는 SK인포섹과 사업제휴를 체결
 - 'VURIX'는 무한대의 CCTV와 IoT 기기를 연동·확장할 수 있으며, 'IP-Matrix'는 서버 한대가 최대 Full HD 1000ch까지 수용가능 하도록 구현
- (MotionHouse) '15년 설립한 체감형 모션 시뮬레이터* 전문 제조/판매 회사로, 전동 액츄에이터**, 모션 제어 소프트웨어, 모션 시뮬레이터 구조 기술을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해옴
 - * 체감형 모션 시뮬레이터란 디지털 콘텐츠의 움직임 효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장치를 말함
 - ** 실제 움직임을 구현하는 부품
 - VR/AR 기기들과 연계하여 게임, 교육, 훈련 등의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자동차 경주 게임용 모델을 실제 체험할 수 있었음
- (KT Sat) '17.5월과 10월에 각각 무궁화위성 7호와 5A호를 새롭게 발사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무궁화위성 5호 및 6호, 콘도셋(복수소유 위성)인 KOREASAT 8호까지 총 5기의 자체 위성을 보유하고 있음

※ '15년 고객사는 3개국, 13개사에 불과하였으나 '18년엔 7개국, 22개사로 확대됨

- 지상망 구축이 어려운 해외 지역, 도서 지역, 산간 오지, 공사현장 등에 소형 안테나 및 위성 송수신 시설을 설치하여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국내 방송사의 콘텐츠를 해외로 송출하거나 해외로부터 제공되는 영상을 위성망으로 수신하여 지상파, MSO, IPTV 방송사 등에 제공하고 있음



2. mm2엔터테인먼트 방문

□ 일 시 : '18. 6. 26.(화), 14:00~15:30

□ 장 소 : mm2엔터테인먼트 사무실

□ 참 석 자

- (방통위) 김석진 위원 등 대표단 전체
- (mm2) Melvin Ang 회장, Chang Long Jong CEO, Ng Say Yong CCO, Gary Goh, Toong Soo Wei 등

□ 세부 면담내용

- (mm2) 회사 소개, 그간의 성과, 한국회사와의 협력현황, 향후 계획 등 주요 사항을 발표

【mm2 소개 및 주요 성과】

- 2008년 설립, 말레이시아에서 시작 후 싱가포르 등으로 사업을 확대. TV프로그램 및 영화 제작 프로덕션으로 주로 중화권을 대상으로 사업 중이고 현재 싱가포르, 홍콩, 타이완, 상하이, 베이징, 뉴욕에 사무실이 있음.
- mm2이외 VR을 제작하는 vividthree 프로덕션, 콘서트 관련 기업인 Dick lee Asia, 영화 배급사인 Cathay Cineplexes 등의 계열사가 있음.
- mm2는 지금까지 65개의 다양한 장르(코미디, 호러, 스릴러 등)의 영화를 제작하였음. 2018년 30여편의 영화를 아시아 전역에 배급할 예정으로, 그 중 절반 이상은 홍콩, 중국, 대만 등 동북아시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작년에는 한국에서도 리메이크한 바 있는 'The Voice'라는 프로그램을 네덜란드로부터 수입하여 제작한 바 있음.
- 뉴욕 사무실은 가장 최근에 개소하였으며, 2개의 독립영화에 투자하였고, 2개의 아시아 영화를 리메이크할 예정임.
- o 영화 배급 업무는 4년 전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120편 이상의 영화를 배급하였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모두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유일한 영화 회사임.
- 말레이시아에서는 160개의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어 말레이시아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는 2위의 영화 배급사임.
- o 싱가포르는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양한 시장을 타겟팅하는 것이 mm2의 비전임.
- 우선은 중화권(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타이완)을 대상으로 시작하였고 향후 비중국어권이면서 좋은 콘텐츠 제작역량이 있는 시장(태국, 한국, 인도, 일본)으로 확대

【한국과의 교류·협력 현황】

- o 한국영화 “부산행”을 VR로 제작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장을 만들고 있음. 직접 여행하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임.
- o 한국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이야기(More than blue, '09년)”을 타이완용으로 리메이크하여 2018년 말 개봉예정.
- o CJ E&M과는 2020년까지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6편 영화 제작할 예정. ‘안녕 나의 소녀(Take me to the moon)’이라는 영화를 한국에서 롯데시네마가 배급한 바 있음. zombiepura라는 자체 제작영화를 한국기업 Panda와 협력하여 제작 중에 있음.

-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국영화를 배급할 예정이며, 공동제작, 라이선스, 배급, 포맷수입 등 한국과 함께 일할 많은 기회가 있길 바램.



o (방통위) mm2가 인종과 국경을 넘어 문화컨텐츠로 통합하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함. 전 세계가 미국영화로 통합되어왔는데 아시아 문화가 담긴 영화가 제작·배급되고 많은 국가들(대만, 중국, 태국, 한국 등)에 콘텐츠가 확산되는데 mm2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인상 깊음.

- 동남아를 주 활동무대로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사업자인 CJ E&M을 파트너로 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o (mm2) 우리 기업의 핵심은 콘텐츠의 창의력과 좋은 인재임. 인재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있기 때문에 좋은 콘텐츠를 제작을 위한 창의력을 다양한 파트너로부터 제공받고자 함.

- CJ E&M는 다양한 사업(콘서트, 기획사, 제작 등)을 하고 있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함.

- 한국과 달리 싱가포르는 작은 시장이기도 해서 자연스럽게 외국기업과의 제휴를 도모하게 됨. 한류를 주도하는 드라마를 제작한 노하우와 mm2의 경험이 좋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

- mm2가 싱가포르기업인지 외국기업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있는데 이런 현상을 자랑스럽게 생각함. 또한, 세계에서 각광받는 한류콘텐츠 탄생에 기여한 정부의 지원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함.

- (방통위) 말레이시아, 홍콩, 태국, 심지어 미국까지 해외지사를 두고 있는데, 미국시장은 어떤 장르와 콘텐츠를 겨냥하여 진출한 것인지?
- (mm2) 최근 시장 수요의 변화를 고려한 것임. 아직 미국은 할리우드 콘텐츠 위주이지만 아시아는 점차 할리우드 영화 비중이 줄어들고 서서히 아시아 콘텐츠가 부상하고 있음. 특히 인도, 태국, 중국, 한국에서 아시아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미국은 마블 같은 슈퍼히어로물이 인기가 많지만 향후 한계에 이르렀을 때 아시아의 훌륭한 콘텐츠와 창의성이 시장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함.
 - 특히 싱가포르를 여러 민족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국제적인 도시라 미국 내에서 아시아 콘텐츠를 소개하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함.
- (방통위) 인구가 많아 시장성이 큰 인도네시아와 인도에 대한 진출 계획은?
- (mm2) 인도는 발리우드라 칭해지는 자국 콘텐츠 소비위주라 현재는 프로젝트별로 진출하는 정도이고 본격적인 진출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임.
 - 인도네시아는 아직 본격적으로 콘텐츠를 진출하기에는 시장형성이 아직 초기단계라고 판단함. CJ E&M과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영화를 제작할 계획은 있음.
 - 두 시장을 비교하자면 인도네시아는 인도보다 작은 시장이긴 하나 가능성은 더 있다고 판단됨.
- (방통위) 중동시장에서 한류드라마의 인기가 매우 컸었는데 중동쪽 시장 진출은 검토한 바 없는지?

- (mm2) mm2 기업 규모나 자원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미국과 아시아에 주력해도 바쁠 것이라고 생각함. 중동지역 계획이 아직 없음.
- (방통위) 한국과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데 어려웠던 점이나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mm2) 한류는 정말 놀라운 현상이었음. 겨울연가도 그렇고, 15년 전만 해도 한국드라마는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매우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음. 매우 빠르게 중동까지도 진출하였는데 한류확산에 대한 한국정부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궁금함?
- (방통위) 시장경제 원칙상 기본적으로 해외 진출 등 사업 확장은 민간영역으로 보아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거래를 성사시키지는 않음. 어느 제작사를 특별히 지원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것임.
 - 다만, 제작에 어려운 장벽이 있으면 해소시킨다거나, 제작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정책은 이루어지고 있음. 정부가 직접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지원 기관에서 좋은 콘텐츠를 지원하는 방식임.
- (mm2) 기회가 된다면 우리도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바람.



3. 국제방송장비박람회(BCA) 참관

① 국제방송장비박람회(BCA) 개요

□ 일 시 : '18. 6. 27.(수)

□ 장 소 : 쉐넉 싱가포르 컨벤션 , 싱가포르

□ 행사 내용 :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방송장비박람회로 동/서남아시아 시장 진출기반 및 채널 확보를 계획하는 업체들의 참가가 지속적으로 증가

□ 전시 품목 : 3D 및 디지털 TV, 4K UHD 방송 관련 장비, 카메라, 모바일방송, OTT, 위성장비 등

□ 행사 규모

○ 참가업체 : 49개국, 646개사(한국 23개사), 13개 단체관

○ 방 문 객 : 8,299명



② 한국 업체 주요 현황

- (Lumantek) 2006년에 설립된 후 중국, 대만, 미국 등에 방송통신 장비를 수출하고 있음
 - 전시 중인 다채널 비디오 스위치 'VS4'는 여러 카메라의 다양한 해상도를 하나로 조절해주며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막 삽입도 가능
 - 4채널 Full HD 스위치로 1인 미디어 및 중소형 미디어에 적합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가능
- (Acetel) 1997년에 설립된 방송기술개발 전문업체로서 국내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의 디지털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 진행
 - 전시 중인 다채널 모니터링 장비는 여러 채널의 신호를 입력 받아 하나의 모니터에서 화면 분할을 통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송용 멀티뷰어로서 채널수가 많더라도 UHD화질을 유지할 수 있음
- (TGL) LED 조명 제작회사로 한국철도공사, 롯데건설, 포스코, 이마트, 대우건설 등과 거래하고 있음
 - 방송조명인 'LUKAS'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미디어센터에서 TV 스튜디오, 프레스룸 등에서 사용
- (Laon-Technology)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무선 인터컴 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있음
 - 기존 제품들과 달리 면허가 필요 없는 5GHz UNII Band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고 간섭회피 기능이 있어 다양한 종류의 음향 영상 장비가 사용되는 대형 공연장에서도 혼선 없이 안정된 서비스 가능
 - 양방향 동시 송수신이 가능하며 하나의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최대 11개의 동시 통화 채널을 제공함

- (TVLogic) 국내 방송용 모니터 시장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음
 - 전시회에 선보인 31인치 HDR 모니터 'LUM-310R'은 4k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대 1백만 대 1의 명암비를 구현
- (NEXTODI) 휴대형 메모리 백업장치 전문기업으로서 가볍고 작으면서 빠른 속도로 백업을 할 수 있는 장치 개발
 - 백업장치이면서 동영상 재생 기능을 겸비하여 현장에서 백업된 데이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음
- (삼양옵틱스) 카메라 교환렌즈 전문생산업체로서 4K 이상 화질에 대응하는 영상 전문렌즈를 전시
 - 정밀한 초점 조절과 소음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생산제품의 90% 이상을 유럽, 미국, 일본 등에 수출

③ 외국 업체 주요 현황

- (Postium) 한국에서 모니터를 생산하는 싱가포르 디지털 미디어 솔루션 전문기업
 - 대표상품인 4K 모니터 'OBM-X310'은 콘텐츠를 더욱 사실적이고 극적인 영상으로 표현
- (Zeiss) 1846년 독일의 기술자였던 칼 자이즈가 정밀기계와 광학기계를 제작하기 위해 공방을 설립한 것이 회사의 시작임
 - 200년의 역사를 가진 회사인 만큼 다양한 카메라 렌즈를 제작하고 있으며 할리우드 영화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

- 최근 출시한 새로운 영화렌즈 '슈프림 프라임(Supreme Prime)'은 피부톤과 같은 질감을 선명하면서도 부드럽게 표현한다고 설명
- o (Canon)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들의 표정과 경기장면을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는 고성능 렌즈를 출시하고 있고, 평창올림픽 중계에도 사용되었음
- 평창올림픽 때 캐논은 캐논 촬영 장비를 사용하는 사진작가·기자 등 업계 전문가에게 최신 촬영장비와 관련 정보,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CPS, Canon Professional Service)을 운영하였음
- 축구 경기장 등 역동성이 필요한 장소에서 흔들림 없이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 시현



4.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 방문

- 일 시 : '18. 6. 27.(수), 14:00~15:30
- 장 소 : IMDA 회의실
- 참 석 자
 - (방통위) 김석진 위원 등 대표단 전체
 - (IMDA) Aileen Chia 부청장
 - (PDPC) Jason Tan 과장, Junie Neo, Albert Pichlmaier, Chung Sang Hao 등
- 세부 면담내용
 - (방통위) 싱가포르의 1인당 GDP 6만불을 상회하는 경제 강국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한국도 세계 최고의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있는 정책추진을 통해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과 함께 정보 활용을 통한 4차 산업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 (IMDA) IMDA는 미디어 관련 규제와 정책 입안 업무를 하고 있고, PDPC는 IMDA의 산하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4차 산업과 디지털 정보 활용을 위해 PDPC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 (방통위)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은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정책 추진 시 고민이 많은데, 싱가포르에서는 신산업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규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 (IMDA) 일단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신뢰와 투명성이 매우 중요함.

투명해야 소비자와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고 신뢰기반으로 비즈니스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함.

- 소비자 이익을 우선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동시에 비즈니스를 합리적으로 진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이용자의 동의, 기업의 투명성 확보 등이 이슈임.
- o (PDPC) 싱가포르 경제특성상 외국과의 무역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글로벌 이코노미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
 - 개인의 동의제도를 완화하면서 기업의 책임성은 강화하는 방향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신고/고지, 개인정보영향평가, Privacy By Design(PBD, 설계단계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
- o (방통위)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익명정보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한국에서는 가명·익명정보가 재식별되거나 오·남용될 우려가 큰데 싱가포르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 o (PDPC)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상황임. 가명·익명정보에 대한 개념 설명,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하고 있음.
 - 싱가포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불과 4년 전에 만들어졌을 만큼 데이터보호는 새로운 영역임. 많은 기업이 익명화라는 개념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홍보 및 교육에 집중하고 있음.
 - 익명화 가이드라인 이외 데이터 공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발간하였는데, 가이드라인은 이론적 배경보단 주의점, 기술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실용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음.
- o (방통위) '18.5.25일부터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시행 중인데, GDPR은 EU 역내의 기업 뿐 아니라, EU 역외에서 EU 내 정보주체

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됨.

- 이에 따라 방통위는 EU GDPR 안내서('17.5월) 및 가이드('17.12월) 발간, GDPR 세미나·간담회 개최 ('17.5~'18.6월, 국내·현지 등 총 10여회) 등을 통해 기업이 GDPR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 o (IMDA) 무역교류가 활발한 싱가포르의 특성상 GDPR의 적용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음. 싱가포르 개별이 아닌 아태지역의 나라들이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CBPR 등의 체계와 함께 고민하고 있음.
 - ※ 싱가포르는 '17.7월 CBPR 가입신청서 제출 이후, CBPR 가입이 공식 승인 ('18.3월)되었음
- o (PDPC) GDPR에 대한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별 기업이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는 진행하지 않음. 비즈니스마다 적용 여부, 필요한 준비 등이 다를 것이고 애초에 GDPR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임.
- o (방통위) 한국도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가이드를 제시하기 보다는 GDPR 시행에 따라 EU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이 해당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미나·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인식제고 활동을 하고 있음
 -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 등 취약 및 지원 필요 기업을 중심으로 'GDPR 대응 중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방통위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범부처가 합동으로 GDPR 대응을 위해 협력하고 있음
- o (IMDA) GDPR 내용 중에서 방통위가 국내법 도입을 고려할만한 부분이 있는지? 반대로, GDPR이 국내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 (방통위) 한국은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고 GDPR도 높은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고 할 수는 없음
 - GDPR 중 어떠한 내용을 국내법에 도입할지는 국내 법체계, 산업 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 다만, 익명·가명정보 활용, 국외이전, Privacy By Design(PBD),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음.
- (PDPC) CBPR 가입과 EU 적정성 평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두 정보보호 체계를 어떻게 국내법에 적용할 것인지?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있는지?
- (방통위) EU 적정성평가에 대해 '18년 말까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EU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국은 CBPR 가입 승인(17.6월) 후 KISA를 국내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APEC에 인증기관 신청서를 제출(17.12월)한 상태임
 - 인증기관 신청 이후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CBPRs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 체계 검토하고 있음.
 - 다만, APEC CBPR에 가입하더라도 국내법의 개정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APEC CBPR 정책,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제43조 : CBPR 제도는 회원국의 국내 법규를 대체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CBPR가입을 통해 APEC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지기를 바램.
 - EU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국내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EU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한국으로 이전된 후 제3국으로 재이전될 경우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부분임.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국외 재이전 관련 조문이 없어 해당 내용이 반영된 정부 개정안(17.3월)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 (방통위) 싱가포르는 외국과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인 만큼 싱가포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 싱가포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 (PDPC) 개인정보 뿐 아니라 데이터 전반에 대한 국외이전을 주의 깊게 보고 있음. 앞으로 AI 발전으로 데이터와 개인정보의 구분이 어려워질 것이어서 정보 자체의 국외이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관련 싱가포르 국내법에 따른 인증을 받으면 CBPR을 준수한 것으로 보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음. 이 경우 중소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생각함.
 - GDPR과 관련해서 유럽 국가들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유럽 국가들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에 있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8년 6월 25일(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 2018.6.25.(월)

문의 : 기획조정관 국제협력팀 김영주 팀장(☎2110-1331)
박규태 주무관(☎2110-1342)

김석진 상임위원, 개인정보 보호 분야 국제협력 강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김석진 상임위원은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 아이린 차아(Aileen Chia) 부청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 관계자들과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대응방안, APEC CBPR* 운영 계획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다.

* CBPR(Cross Border Privacy Rules) :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회원국 간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인증 제도

아울러 김석진 위원은 방송통신 장비 및 기술 분야의 최신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6월 26일부터 개최되는 국제 방송 장비 박람회(BCA)* 및 국제 정보 통신 박람회(CMMA)*에 참석하여 국내외 업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끝.

* BCA(BroadcastAsia) : 싱가포르에서 매년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방송 장비 박람회
CMMA(CommunicAsia)는 정보통신 박람회로 BCA와 연계되어 병행전시